

12/27/15

설교 제목: 마지막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태복음 25:14-33

- (마 25:14)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이 **절관주** 마 21:33, 눅 19:12
- (마 25:15)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 (마 25: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 (마 25:17)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며
- (마 25:18)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 (마 25: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 (마 25:20)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 (마 25: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 (마 25:22)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 (마 25: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절관주** 마 24:45
- (마 25: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절관주** 겔 18:25
- (마 25: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 (마 25: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 (마 25:27)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마 25: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마 25: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절관주** 눅 8:18

(마 25:30)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느덧 2015 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정말 세월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2015 년을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어 2015 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가 지날 때면 우리는 어김없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했던 일, 잘못했던 일, 좋았던 일, 슬펐던 일, 실수했던 일 등등을 회상하며 반성하고 결산하는 시간을 갖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한 해 한 해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가 오랜 후에 돌아와 종들과 타국으로 떠날 때 맡겼던 자신의 소유를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 비유를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또는 받은 직분과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 설교 하십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재능을 살려서 이익을 남기라거나 혹은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마지막 결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올 것이고 그 때 결산의 시간이 있을 것이니 이를 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 비유의 전후를 살펴보면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한 뜻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 바로 앞 장인 마태 복음 24 장과 본문이 포함된 25 장은 종말장이라고 불릴만큼 종말과 그날 있을 심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두 비유(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그 두 비유 중 한 비유입니다.

본문에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맡은 세 종들이 등장합니다.

다섯 달란트 맡은 종과 두 달란트 맡은 종은 똑같이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라고 주인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칭찬과 축복으로 결산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과 더불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라는 심판으로 삶이 결산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넓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달란트’는 우리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시간, 물질, 재능, 지식 등등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명심해야 할 몇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달란트의 소유주는 주인이란 사실입니다.

달란트는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잠시 종에게 맡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지식 등등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 놓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보같은 우리 인간들은 그것들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양 그리하여 그것들을 영원히 자신들이 움켜지고 살 수 있는 양 행동하고 삽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2.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주인을 위해 이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섯 달란트 맡은 자와 두 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겼고 그것으로 인해 주인에게 칭찬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물질, 재능, 지식 등등을 맡기신 목적,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를 알고 충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에 대한 종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3. 더디더라도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종들은 주인이 빨리 돌아 오지 않으니 아주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오랜 후 일지라도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비록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반드시 오셔서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해 결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 25: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 25: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 25:33)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 25:34)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 본문의 비유는 종말에 있을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 비유도 같은 내용입니다.

한 임금이 무리를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구분하여 놓습니다.

그리고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 보았다’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거나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 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리십니다.

(마 25:46)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두 비유 속에는 사람들이 혼돈될 우려가 있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의 내용이 자칫 우리가 선행(착한 일)이나 어떤 행동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비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에 야고보서를 다룰 때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행위는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동과 열매로 사람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마 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 7: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 7: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 7: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 7: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 7: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모두들 말만으로는 안되고 행위와 열매로 믿음이 증명되어야만 참 믿음이 있는 구원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참 믿음을 가진 성도면 그 삶의 모습에서 착한 행실로, 아름다운 열매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 쾌락만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그만하면 하나님 잘 믿는거야.

특별한 일 없을 때는 교회도 잘 나가는 편이지, 헌금도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지, 그리고 특별히 큰 교회에서 선교회 회장도 맡아서 열심히 쫓아 다녔지. 선교 회원들 흰 셔츠에 빨간 나비 넥타이 매게 하고 교회 찬양 경연 대회에 나가서 1 등도 했지.

그런 니가 천국을 못가면 누가 천국을 가겠니?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것들과 구원과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간다고, 헌금을 낸다고, 선교 회장을 했다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믿음이 있으면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회 회장직도 맡아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간다고, 헌금을 한다고, 선교회 회장직을 맡았었다고 무조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있고 그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그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백악관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찾아가면 오바마 대통령은 그들의 이름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며 만나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안다고 하시며 당신의 나라에 백성으로 삼아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의 의미는 부부가 성관계를 맺는 관계, 그러니까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문 비유에 나오는 충성된 종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 하실 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과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때까지 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